

불자 세상보기



김호성 동국대 교수, 일본불교사연구소 소장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근본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범한 역사적 죄업에 기인하고 있음은 두말 할 나위없다. 그러한 죄업을 말씀이 씻어내기 위해서는 일본이 진심어린 사죄를 하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이며,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터인데 말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몇 차례 외교적 수사로 가득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이내 쏟아지는 만인들이 그러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았다. 특히 최근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자세는 다시금 예전의 제국주의 사상을 떠올리게 한다. 왜 일본은 진심어린 사죄를 못하는 것일까? 사죄나 참회는 원래 어려운 일이다. 자기부정(自己否定)이기 때문이다.

자기집착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생인데, 사죄나 참회는 그러한 자기를 무(無)로 돌리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곧 부처로 등극하게 되리라. 참회를 통해서도 부처가 될 수 있음이 그런 맥락에서이다. 한 개인이 잘못을 사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하나의 국가 내지 민족이라는 거대아(巨大我)가 자기부정에 이른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까지 부정해야 할 터인데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는 중국의 선진문화를 수용해온 역사이다. 물론 우리(삼국)라는 중개항을 거친 수입이다. 그러나 이내 그들은 직접수용으로 나아간다.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제 그들은 중국과 대면하게 된다. 그러면서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한다. "해뜨는 나라의 천자가 해지는 나라의 천자에게"라는, 외교문서의 표현에서도 그런 자존감(自尊心)이 나타나 있다. 이제 중국문화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 우리의 문화가 있다. 그것이 더욱 우수하고 독자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 하에 성립하는 것이 국학(國學)이고

신도(神道)이다. 침략주의 철학은 이를 그 모델로 하였다. 일본은 패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원자탄을 앞세운 물리전(物理戰)의 패배일 뿐 사상전(思想戰)의 패배는 아니었다. 일본이 독일과 다른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학이나 신도, 또 그들과 동조한 불교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 자칫 일본의 역사와 그 정체성 자체의 문제 여덟까? 라는 길은 없을까? 있다. "원한을 원함으로써 갖지 말라. 원한을 씌으로써 원한을 갚아라"는 『법구경』의 말씀을 실천하면 된다. 참회 없이도 용서를 하라는 말씀이다. 그런 뒤에 역사적 허물이 무엇인지, 사상적 오류가 무엇인지를 조곤조곤 일러 주면 어떨까? 다만 부처님 제자들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한일 간에는 숨 쉴 수 있는 작은 틈새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른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불교는 애국주의가 아니라 중생주의라는 점만 깊이 성찰할 수 있다면 가능할 터인데... 그것이 가능할지? 나로서는 아직 확신이 없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다.

사부대중 칼럼



전선범 법학수도사주지

종단에서는 지난 8월 21일 '사찰음식 우수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상명대 황희준 교수가 '사찰음식 정의'를, 종단 최초로 한국 외식산업 연구소 연구원 정경란 박사가 '사찰음식의 영양 분석'을, 그리고 혜전대 김경임 교수가 '사찰음식 영양학적 우수성'을, 필자는 '사찰음식의 조리법'을 발표했다. 칼럼의 초반부터 발표자들의 성명과 제목을 길게 소개한 이유는 모든 것이 조계종단에서 획기적으로 시도한 자못 의미심장한 최초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사찰음식은 식물성 재료를 사용하며 우리의 문화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정신과 건강을 맑게 하는 친환경적 음식이라 할 수 있다. 연잎밥 산채모듬밥 아욱국 사찰김치 취나물 들깨무침 우영잡채 무약저지 방아잎장떡 산초장아찌 다시마찰밥부각

감자부각 송차 등은 대표적인 사찰 음식이다. 이런 사찰음식들은 칼로리 및 탄백질, 포화지방 함량이 낮아 지방의 고른 섭취가 가능하다. 또 충분한 식이섬유의 섭취는 식물성 식품군 섭취가 감소하는 한국인의 식습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아울러 적절한 칼슘 및 철분의 섭취도 가능하다. 질병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중 지질, 혈당, 혈압 등을 낮추며 나물과 해조류에는 동물성 식품에 비해 비타민 B12가 풍부하다는 것이다.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이 모두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그러나 수행자의 입장에서 좀더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다. 출가 수행자들은 삶과 죽음이라는 '일대사연연(一大事因緣)'을 해결하고자 출가하였기에 '수행'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이 사찰음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장려자각 선사는 <귀경문>에서 '육미부정(六味不稱)하고 삼덕(三德)이 불급(不給)이면 비전좌소이불중야

(非典座所以奉衆也)오(緇門警訓)라고 했다. 대중스님들의 음식조리를 담당하는 전좌 소임자는 먼저 육미(솜떡, 단맛, 짠맛, 싱거운 맛, 신맛, 매운 맛)를 정결(精潔)하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삼덕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삼덕이라 함은 정정(淸淨), 유연(柔軟), 여법(如法)의 조리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도원(道元)선사는 <전좌교훈(典座教訓)>에서 '불법승 삼보(三寶)에 올리는 음식물을 직접 조리한다는 사실에 순수하고 기쁜 마음을 지녀야 하고,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듯이 무한한 애정을 갖고 요리할 해야 하는 아버비의 마음(老心)을 갖추어야 하며, 세 번째는 큰 산과 큰 바다와 같이 치우치지 않고 누구에게나

사찰음식과 수행정신 그리고 건강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므로 알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글쓴이: 혜전법사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혜전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혜전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작대기風水 화제의 신간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신 사람들은 방향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저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책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社說

늦었지만 신선한 명상과 뇌과학 바람

법륜, 혜민 스님들로 인해 촉발된 '힐링'과 '치유'는 시대의 트렌드가 됐다. 심지어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는 힐링채널 '휴(休)'를 개국하기까지 했다. 채널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명상에 가깝다. 자가 치유를 위한 명상과 뇌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계에도 참선은 응용한 명상과 뇌과학 관련 강좌와 연구, 저술들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사는 9월부터 진행하는 불교대학 강좌에 이런 트렌드를 반영했다. 오는 9월 7일부터 '명상과 행복, 뇌과학을 넘어서'를 신설·진행하고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은 알아차림 명상을 이용한 마인드케어 지도사 과정을 개강했다. 마인드케어 지도사 과정의 경우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이번 강좌는 좌선, 행선을 통한 마인드케어 기술과 마음 과학, 심리학, 상담 이론까지 배울 수 있다.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속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강선원과 가천의대는 청소년 명상프로그램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고, 그 결과 명상 후 집중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있음이 조사됐다. 이런 명상과 뇌과학의 상관성은 서구사회에서 더 높은 관심과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발간되고 있는 뇌과학 서적은 대부분 서구 사회의 연구를 반영한 것들이다. 매뉴얼화, 과학화된 명상 방법론들이 이제 한국 불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기복이 머물던 한국불교의 '마음'을 수행이라는 '마음 자리'로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불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연구기관과 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을 중장하는 한국불교의 수행체계가 어디와 있고, 진정 대중화를 위해서는 무엇해야 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지하철 '풍경소리' 철거 납득 안돼

지하철에 가면 항상 눈이 먼저 가는 것이 있다. 부처님 말씀이나 위인들의 일화 등에서 감동적인 것들을 뽑아 게시판으로 걸어 놓는 이른바 지하철 '풍경소리'와 '사랑의 편지'다. 이들은 삭막한 지하철에 감토수 같은 법문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곧 철거될 거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지하철 '풍경소리' 측은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난 8월 16일 '서울지하철 불편 사항 개선사업' 일환으로 5, 6, 7, 8호선 141개 역에 걸린 '풍경소리'와 '사랑의 편지'를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철거 이유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지난 1월 발족한 '서울지하철 환경개선 시민개혁단'의 표본조사 결과 5백여 건의 개선 사항이 접수됐는데, 이 중 종교 관련 부착물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7월 31일 열린 시

민정책 토론회에서 종교적 형평성 문제로 '풍경소리'와 '사랑의 편지' 철거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풍경소리의 게시판은 단순히 불교의 포교수단이 아니다. 이젠 종교를 초월해 많은 시민들이 게시판에 적힌 글을 읽고 용기를 얻는 감성 문화콘텐츠가 됐다. 1999년부터 시작해 10년 넘게 시민들에게 일상의 감동과 지혜를 전해왔다. 전국 지하철역과 철도역 등에 2천 6백여 개가 설치될 만큼 규모가 커졌다. 특히 후원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운영하는 공익성 비영리 단체의 오랜 활동을 칭찬하는 뜻 할말정,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는 서울시의 조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게시판이 종교적 형평성에 어떻게 위배가 되고,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끼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서울도시철도공사측은 이번 결정을 다시 철회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